

민들레

(*Taraxacum mongolicum*, 감나무과)



민들레 군락.

속 전속결! 이것이 민들레의 생존전략이다.

다른 식물이 겨울잠에서 깨기 전에 지난 해 뿌리에 저장해두었던 영양분으로 재빨리 넓은 잎을 만들고, 그 잎으로 햇빛을 받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5월에 씨를 바람에 날려 보낸다. 잎에 햇빛을 많이 받기위해 잎은 땅에 짝악 누워버린다.

자기의 유전자를 전해 받은 자손을 보낸 후의 생활은 여유롭다. 환경이 좋으면 생활을 즐기며

내년을 준비하면 되고, 환경이 나쁘면 현상유지를 하며 더 나은 내년을 기다리면 된다.

민들레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야지 양지에 흔하게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키는 30cm까지 자라나 원줄기는 없다. 잎은 총생하며 옆으로 퍼진다. 잎은 도피침상 선형이며 무 잎 모양으로 깊게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3-5월에 황색의 꽃이 피며, 잎보다 약간 짧은 화경이 나와 그 끝에 한 개의 꽃이 달린다. 꿀벌은 많이 방화한다. 5월에 열매가 성숙하면 흰 꽃이 새로 핀 모습이다. 관모가 6mm로 길어 약한 바람에도 씨가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밀원으로 쓰이는 외에 식용, 약용, 관상용으로 이용된다. 종자와 분주로 번식이 되며, 특히 뿌리를 잘라 심어도 번식이 잘 된다.

대구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자연자원대학으로 가는 길옆에 수목관찰원이 있다.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나무를 볼 수 있도록 100여종의 나무를 심어 놓았다. 그런데 이번 봄에는 이 땅이 민들레 밭으로 착각할 정도로 민들레가 많이 피었다.

어느 월요일 오후에 보니 민들레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관리자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는



꿀벌의 민들레꽃 방화.

바 없다고 하며, 주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며 캐가는 일이 많았다며, 주말에 다 캐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다시 민들레 밭으로 변해 있었다. 가까이 가 보니 캔 흔적이 별로 없었다. 그 후 며칠간 관찰해보니, 습기가 있는 오전에는 꽃도 잎도 피어 있다가 오후에는 꽃도 잎도 오무려 없는 듯 보였다. 환경변화에 지극히 예민하게 반응하여 주어진 자원을 잘 이용하는 생존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일편단심 민들레’ 라는 노랫말이 있는 듯한데 무슨 뜻

일까? 거의 모든 식물은 한 곳에 뿌리를 박으면 일생동안 그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혹시 민들레의 굵은 뿌리가 땅속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들레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이 우리나라에 11종이 자라고, 좁민들레(*T. hallaisanensis*), 산민들레(*T. ohwianum*), 흰민들레(*T. coreanum*), 서양민들레(*T. officinale*) 등이 밀원식물로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흰민들레가 약효가 높다고 하는데, 학명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으며 학명에 약효가 있다는 의미가 있는 서양민들레보다 약효가 더 있는 것은 신토불이?

서양민들레가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서양민들레는 3월부터 9월까지 꽃이 피고, 열매는 4월부터 익는다. 민들레보다 더 오래 자손을 퍼뜨리니 자손이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겠다.

꿀벌이야 어느 민들레든 따지랴? 어느 민들레든 꿀과 화분이 있으면 채취해 올 것이다. 민들레! 좋은 밀원식물이다.



민들레의 씨. 관모가 길어 바람이 살짝 불어도 씨가 멀리 날아간다.